



◀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는 공간, 행위, 놀이가 결합된 전시를 내년 3월 1일까지 펼친다. 전시실에 설치된 이미지.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문화적 호기심, 여름방학을 부탁해~

ACC ‘하하하(夏夏夏) 놀이터’
시립미술관, 공간·놀이 이색 전시
시립도서관, 맞춤형 독서체험
문화기관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창작 워크숍 장면. <ACC 제공>

◇ACC, ACC재단서 떠나는 상상과 진로 여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ACC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ACC는 8월 2일부터 24일까지 ‘하하하(夏夏夏) 놀이터’를 운영한다. 박물관과 체험관이 연계된 이번 프로그램은 각종 체험을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극 ‘와양 쿨랏’을 체험하는 ‘신비한 바람: 보물 탐험대’ (4~6세 유아 대상)를 비롯해 탐험가가 되어 바다의 비밀을 풀고, 전설 속 황금의 땅을 찾아 떠나는 프로그램 ‘항해의 전설: 보물 탐험대’ (초등 1~4학년), 전통 패브릭 콜라주 작품 만들기 체험(초등 5~6학년) 등 연령대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오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여름방학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은 공연기획자, 소장품 관리자, 보존과학자 등 문화예술 분야 직업을 체험해보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연장 탐방, 전문가 특강, 아시아문화박물관 수장고 견학, 소장품 보존 실습

등으로 구성돼 실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창·제작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창작워크숍’도 열린다. LED 무드등, 블루투스 스피커 등 나만의 아이디어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며 창의력과 공학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ACC재단은 8월 31일까지 그림책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전시, ‘꿈꾸는 직업 놀이터’를 진행한다. 아이들은 아시아의 직업과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다.
실감형 콘텐츠와 직업 체험존, 자율 워크숍 등으로 꾸며진 공간은 모험과 놀이가 결합된 이야기 여행이자 직업 놀이터가 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참가비 등은 ACC·ACC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립도서관 ‘여름독서교실’
광주시립도서관 3곳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각 도서관은 주제별 맞춤형 독서·체험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문해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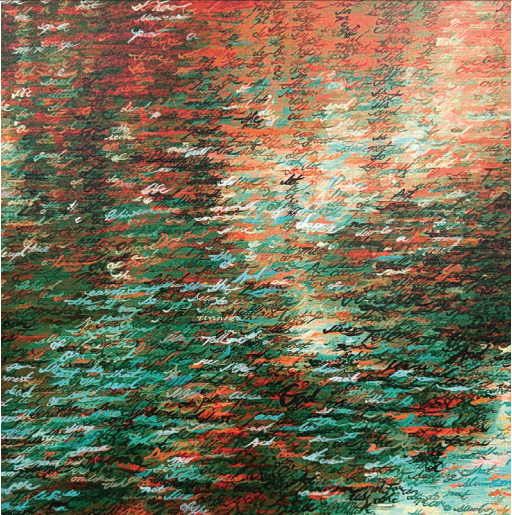
을 준비했다.
무등도서관은 초등 2~4학년을 대상으로 ‘문해력이 뜨려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필사, 글자 보드게임,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해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다.
사직도서관에서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전쟁으로 보는 세계사’ 프로그램이 열린다. 세계사 속 주요 전쟁을 중심으로 독후활동, 토론, 골든벨 퀴즈 등이 펼쳐지며, 평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산수도서관은 초등 2~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 곳곳, 만들GO! 알GO!’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북아트 만들기, 피라미드 제작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세계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다.
송정희 광주시립도서관장은 “이번 여름독서교실은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만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광주시립미술관 점, 선, 면 매개로 공간탐험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1층)는 내년 3월 1일까지 공간과 행위와 놀이가 결합된 이색적인 전시를 진행한다.
‘예술공동체 진달래와 박유혁’ 작가가 참여형 전시로 구현했으며,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에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은 건축가를 비롯해 디자이너, 설계자가 돼 블록을 쌓고 원하는 구조물을 만들 어간다. 공간 내부에 기본적인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체험도 마련돼 있다. 격자형 도안에 모양을 형상화하는 색칠놀이 체험지가 비치돼 있어 활용할 수 있다. ‘예술공동체 진달래와 박유혁’은 그동안 사회문화적 관점을 모티브로 추상적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의미있는 형식들’, ‘물 마늘 양파 유유 과일’ 전 등이 있다.
윤익 관장은 “이번 전시는 건축학적 상상력, 디자인적인 창의력을 동원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방학 때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전시장에 찾아 소통도 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미술 해외 초청 스페인 ‘지평을 넘어’

김25·김영화 등 5명, 16~23일
바르셀로나 ‘상티에 아트 갤러리’

땅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를 지평이라 한다. 물리적인 의미와 달리 철학적이며 문예적인 관점에서 지평은 전망이나 가능성 등을 함의한다.
예술가들은 본질적으로 작품 세계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과 방식, 매체 등을 활용해 독창적인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2025 광주미술 해외갤러리 초청전 ‘지평을 넘어’(BEYOND THE HORIZON)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갤러리에서 열린다.
오는 16일 개막해 23일까지 상티에 아트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광주미술이 주관하고 광주아트페어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해외 아트 페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작가를 해외 갤러리가



김25 작 ‘Noah’s ark’

초청해 이루어졌으며 광주 작가 5명이 참여한다.
김25를 비롯해 김영화, 리일전, 변경선, 최재영 등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일궈온 작가들은 창작을 매개로 ‘지평을 넘는다’ 열정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바다가 내재하는 다채로운 감성, 영속성을 표현해온 김25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바다를 신화적으로 해석하고 사유한 작품을 출품한다. 대표작 ‘노아의 방주’는 작가가 지향하고 천착하는 예술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림이다. 험란한 바다 위에 쓰여진 무수히 많은 글자는 서사적 텍스트를 회화적 텍스트로 전환함으로써 발현되는 역동성과



김영화 작 ‘The Lighthouse of Jeju’

신비로움을 내재한다.
김영화 작가의 ‘The Lighthouse of Jeju’는 한편의 동화 같은 그림이다. 무더위를 피해 금방이라도 제주도의 어느 해변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부채질한다. 초록의 하늘과 솜뭉치 같은 구름, 은빛물결이 칠랑이는 청색의 바다, 오래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켰을 등대를 배경으로 달리는 캠퍼카는 여름의 낭만을 선사한다.
최재영 작가의 폭염을 밀어내는 환상적이며 때때로 ‘Glam boy-03’, 변경선 작가의 끝없이 펼쳐진 점을 섬으로 구현한 듯한 ‘Infinite Dots’, 리일전 작가의 유동하는 땅을 떠다니는 시간으로 포착한 ‘float time II’도 일련의 인식의 범주를 초월한 작품들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정아 가족음악회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

19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

피아노 선율을 따라 동화가 살아난다.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 음악회가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정아(사진)가 매년 기획해 온 가족 클래식 시리즈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클래식을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에프의 대표적인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가 피아노 듀오로 펼쳐진다. 연주와 해설, 영상, 동화 낭독이 어우러져 클래식을 좀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터와 늑대’는 각 악기가 하나의 캐릭터를 맡아 연주되는 음악극 형식으로, 어린이들이 클래식 악기의 음색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피



터는 현악기로, 오리는 오보에로, 늑대는 호른으로 표현되며 음악과 이야기가 조화를 이룬다. 피아노로 재편곡된 이번 버전에서는 김정아 피아니스트의 협연으로 다채로운 감성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동물의 사육제’는 사자, 거북이, 백조 등 여러 동물들을 묘사한 짧은 곡들이 이어지는 모음곡이다. 유머와 풍자가 깃든 선율 속에서 아이들은 각 동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클래식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특히 ‘백조’는 섬세한 선율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관객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명곡이다.
광주대 교수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김정아는 지난 2010년부터 ‘해설과 함께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를 매년 진행해왔다. 그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 음악회가 많지 않다”며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